

내 삶으로, 내 배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예측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입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깊은 곳은 다 다르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깊은 곳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시고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인도자

찬 송

300, 364, 384, 488장 (중 택1)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2026

S h e m a A g a i n

중추절 감사예배

오 직 주 님

칠 년 을 하 루 같 이

 명성교회



예배순서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도 신명기 6:4-5 (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같이

찬송 292, 304, 406장 (중택1) 다같이

성서교독 다같이

인도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회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인도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회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회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를 찬양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 멘-

기도 가족중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성경봉독

누가복음 5:1-6

인도자

- 1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

깊은 곳에서 만나는 은혜

인도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무리 중에서 나무 위의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디가 깊은 곳이야?’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호수의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르신 베드로의 배는 베드로의 삶의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께서